

2025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Vol.2

ISSUE FOCUS



인증의 혁신② : 디지털 배지 현장 속으로!

WHERE
edition

ISSUE FOCUS

인증의 혁신②: 디지털 배지 현장 속으로!

ISSUE



- > 디지털 배지는 왜, 어떤 과정을 통해 도입되었을까?
- > 현장에서는 디지털 배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 > 디지털 배지가 만든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디지털 배지(Digital Badge)는 학습의 성과뿐 아니라 과정을 가시화하고, 학습자의 성장을 사회적으로 연결하는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이슈포커스에서는 디지털 배지를 실제로 운영 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도입 배경과 설계 과정, 운영 현황과 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배지가 평생학습 현장에 정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며,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립성북청소년센터에서 사용하는 '오픈 배지(Open Badge)'를 "디지털 배지"로 표기합니다.



디지털 배지는 왜, 어떤 과정을 통해 도입되었을까?

교육과 활동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는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 활동을 사회적 자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자율적 성장과 연수 이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배지를 도입했다. 두 기관은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디지털 배지를 도입했을까?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게 된 주요 계기와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청소년 활동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활동 기록은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청소년 활동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동시에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청소년센터 역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전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참여 이력을 종이 문서로만 관리해 왔으나, 장기 보관 및 활용이 어려울 뿐 아니라, 활동을 통해 발휘된 청소년의 역량과 성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고유성과 인증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배지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활동의 디지털 기록이 진로·진학·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AI(인공지능) 시대의 도래로 교육 현장에도 빠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원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교원 연수의 내용과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기존에 경직된 연수 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이 자신의 관심과 필요,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연수를 설계하고, 그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며 역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현장의 요구가 디지털 배지 도입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디지털 배지는
단순한 수료증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한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

디지털 배지는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기획되었나요?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디지털 배지 운영의 핵심 목적은 청소년 활동 실적 관리의 주체를 기관에서 청소년 본인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활동을 디지털 기반 포트폴리오로 스스로 관리하며, 자기주도성과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참여 여부를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청소년의 성장 과정을 반영하는 디지털 인증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기록이 종이 문서가 아닌 디지털 형태로 영구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시 차원의 청소년 활동 정책사업과도 연계해 확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의 자율적 성장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디지털 배지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배지는 단순한 수료증이 아니라 교원의 학습 이력과 전문성 개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인증하는 도구입니다. 교원은 배지를 통해 자신의 연수 참여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연수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디지털 배지를 중심으로 교원의 디지털 역량 수준과 경력에 부합하는 연수 체계를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연수 참여에 대한 동기와 성취감을 높이고, 교원의 성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배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자치단, 진로활동 등 다양한 사업에 디지털 배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AI·디지털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중심으로 디지털 배지를 발급하고 있다. 각 기관은 활동 유형과 역량에 맞춰 디지털 배지 운영 체계를 설계했다. 배지 발급 기준과 운영 과정, 활용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디지털 배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자.

디지털 배지는 어떻게 설계되었으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청소년 활동에 디지털 배지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확산하기 위해, 초기부터 청소년 활동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활동 영역 구분과 인증 기준에 대해 자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6대 핵심역량¹⁾과 세계경제포럼의 4C 역량²⁾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창의력·의사소통·협업·사회정서·진로·디지털·환경 등 8대 역량 중심으로 배지를 설계하고, 2023년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2024년에는 초기 개발한 배지의 리뉴얼 및 표준화 작업을 통해 6가지 발급 영역(성과, 수료, 학습, 준수, 능력, 참여)과 스포츠를 추가한 9대 역량을 바탕으로 총 54종의 디지털 배지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청소년 전용 시간제 사업을 운영하는 노원·망우·동대문·구로청소년센터와 디지털 배지 운영 가이드를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도 디지털 배지 확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사례를 공유하고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등 다양한 사업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단위 청소년 시설과의 연계도 모색 중입니다.

“
디지털 배지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역량을 길렀는지가
드러나도록 설계했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디지털 배지는 약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획·설계되었습니다. 2022년 11월,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자문위원회에서 “교사가 원하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연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기존 교원 연수 체계에 대한 재설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교육부 AIEDAP³⁾ 사업의 수도권역 대표 교육청으로서 디지털 배지를 자체 특화 과제로 설정하고, AI·디지털 연수 과정을 체계화하고 3단계 인증 구조와 14종의 내용 기준을 설계했습니다.

같은 해 자문위원회 분과 회의에서 ‘학습 경험과 성장을 기록하고 경력 설계에 활용되는 배지’라는 방향성을 정립했고, 출석 중심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준 마련에 집중했습니다. 6월부터는 AI·디지털 분야 직무연수 22개 과정과 자율연수 4개 과정에 시범 적용했고, 2024년에는 인증 구조를 4단계로, 내용 기준도 10종으로 정비해 운영 체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2025년 현재는 배지 발급 연수 과정을 확대하고, 배지 수령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졌다면 이제는 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블록체인 기반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 연수 이력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교원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시각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AI·디지털 연수를 운영하는 각 기관은 연수 설계와 운영, 배지 발급 신청, 관련 데이터 작성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디지털 배지 설계 체크리스트와 가이드 라인을 제공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6대 핵심역량: ①비판적 사고력, ②창의력, ③의사소통 능력, ④협업 능력, ⑤사회·정서 역량, ⑥진로개발 역량
2) 세계경제포럼의 4C 역량: ①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 ②Creativity(창의성), ③Communication(의사소통), ④Collaboration(협업)
3) AIEDAP(아이에답, AI Education Alliance & Policy lab)은 대한민국 교육부-시도교육청-대학으로 구성된 추진 체계로, 미래 교육과 디지털 교육혁신을 통해 아이들의 미래 삶과 궁극증에 답한다는 비전을 갖고 예비·현직 초·중등 교원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구축된 민·관·학의 종합 지원 체계

시립성북청소년센터에서는 디지털 배지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발급하고 있나요?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진로활동, 청소년 전용 시간제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디지털 배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6가지 발급 영역(성과, 수료, 학습, 준수, 능력, 참여)과 9대 역량(비판적 사고·창의력·의사소통·협업·사회정서·진로·디지털·환경·스포츠)을 바탕으로 총 54종의 디지털 배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활동별 목표와 특성을 반영해 대표 영역과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출석률이나 과제 평가 등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배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영 프로그램은 기초부터 프로마스터까지 총 8단계로 운영되는데, '자유형 25m 50초 이내 완주'와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레벨에 맞는 '성과' 배지가 발급됩니다.

2023년 7월 시범 운영 당시에는 청소년자치단과 다회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218개의 배지를 발급했으며, 2024년에는 386개, 2025년 5월 기준으로는 549개가 추가되어 누적 발급 수는 총 1,153건에 달합니다.



[그림 1]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디지털 배지 체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디지털 배지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발급하고 있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AI·디지털 역량 강화 직무연수에 참여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배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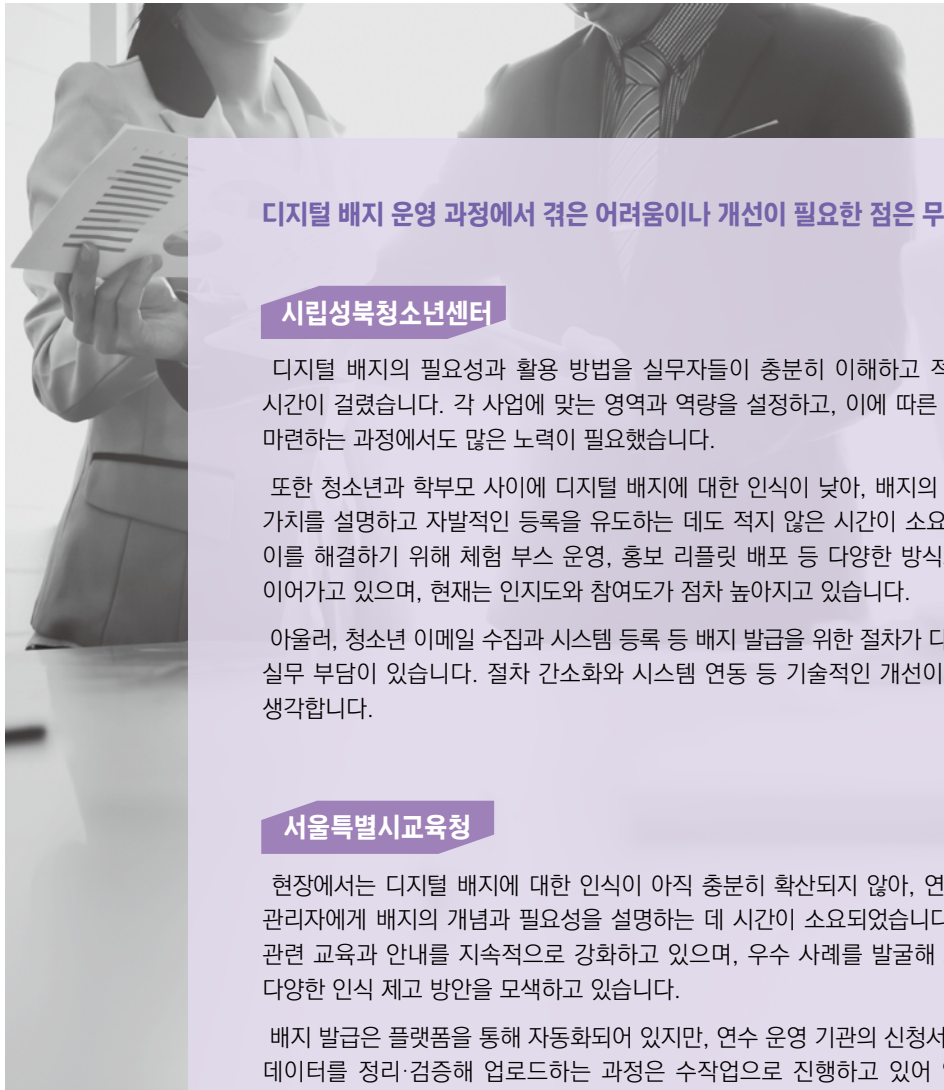
해당 연수는 기본-활용-심화-전문가의 4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목표 역량이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계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과 도구 활용, 활용 단계에서는 수업 적용과 학생 참여 유도, 심화 단계에서는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와 성찰, 전문가 단계에서는 동료 교사 멘토링 역량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 기준은 디지털 이해,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교육환경, 디지털 교수학습, 디지털 교육자료, 데이터 과학, SW 교육, 인공지능 이해,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 창의융합교육 등 총 10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연수자에게 발급되는 배지 외에, 직접 강의를 한 교원을 위한 강사 배지 유형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참여와 실천 양쪽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2,302개, 2024년에는 52,722개의 디지털 배지가 발급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교수학습' 배지 발급이 가장 활발했던 점에서, 교원들이 수업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 2]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배지 체계



디지털 배지 운영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시립성북청소년센터

디지털 배지의 필요성과 활용 방법을 실무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각 사업에 맞는 영역과 역량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발급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학부모 사이에 디지털 배지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배지의 개념과 활용 가치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는 데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험 부스 운영, 홍보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는 인지도와 참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이메일 수집과 시스템 등록 등 배지 발급을 위한 절차가 다소 번거로워 실무 부담이 있습니다.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연동 등 기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에서는 디지털 배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 충분히 확산되지 않아, 연수 담당자나 관리자에게 배지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교육과 안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를 발굴해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식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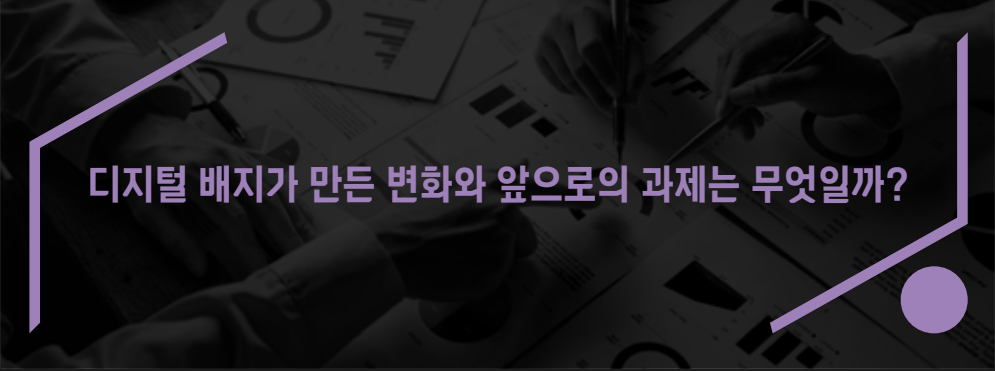
배지 발급은 플랫폼을 통해 자동화되어 있지만, 연수 운영 기관의 신청서를 수합하고 데이터를 정리·검증해 업로드하는 과정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큼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시스템은 배지 발급 현황 정도만 확인할 수 있어,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향후 세부 데이터 분석, 기관별 권한 관리, 사용자 맞춤형 화면 구성 등의 기능이 추가 되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배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체험 부스 운영과 안내 자료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디지털 배지가 만든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디지털 배지는 참여자의 동기를 높이고, 활동 이력을 한눈에 보여주며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게임 아이템을 모으듯 배지를 하나씩 수집하는 과정은 활동에 재미를 더하고, 참여를 지속하는 힘이 된다. 배지를 통해 활동의 의미와 과정이 드러나면서 참여자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스스로 인식하고 다음 활동을 계획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사회적 인식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 현장의 성과와 사례를 통해 디지털 배지가 지닌 의미와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디지털 배지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성과나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시립성북청소년센터는 청소년 시설 중 최초로 디지털 배지를 도입한 기관으로, 청소년 활동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역량을 기반으로 한 배지는 현장 적용성이 높아 타 청소년시설과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노원·망우청소년센터 등 인근 센터들이 디지털 배지 도입을 결정해 현재 함께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서울지역 청소년지도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배지 사례 공유회를 개최하여 시립성북 청소년센터의 디지털 배지 운영 경험과 효과를 공유했고, ‘제2회 아시아퍼시픽 오픈배지 어워드(2024)’에서는 금상을 수상하며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참여 청소년들 역시 디지털 배지를 통해 자신의 활동 이력을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자기주도성과 참여 동기가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활동 빈도와 부족한 역량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서 활동에 대한 태도 변화도 일어났고, 학부모들 또한 자녀의 활동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드론에 관심 있는 한 청소년이 드론 축구단 활동, 대회 참가, 캠프 등에 적극 참여해 관련 배지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진로 방향성과 자신감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배지는 단순한 참여 기록을 넘어, 청소년의 성장 과정과 참여 동기를 구체화하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배지를 운영하며 다양한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교원의 연수 참여 방식과 인식의 전환입니다. 한 교원은 “예전에는 시간을 채우는 연수였는데, 이제는 배지가 쌓이면서 내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생각에 참여 동기가 달라졌다”라며, 배움의 기록이 시각적으로 남는 점이 큰 동기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배지를 받은 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동료들과 공유하면서 성취감과 자긍심을 느꼈다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디지털 배지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교육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수 외에도 ‘에듀플러스워크 미래교육 박람회’와 같은 행사에서 배지를 발급한 결과, 교원들은 “행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계기였다”라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피드백을 전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배지 발급 조건을 일반 직무연수보다 높게 설계한 결과, 교원들이 끝까지 완주하려는 의지가 강화되었고, 외적 보상이 내적 동기로 전환되며 실제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디지털 배지는 이제 단순한 수료의 도구가 아니라, 교원 역량 강화 정책을 설계하고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

예전에는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연수였는데, 이제는 디지털 배지가 쌓이면서 내 학습 이력, 즉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생각에 참여 동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교원

”

“

디지털 배지를 통해 활동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축적된 데이터가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향후 디지털 배지의 확장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시립성북청소년센터의 사례에서 확인된 긍정적 변화와 수요를 바탕으로, 앞으로 디지털 배지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시설을 넘나들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차원의 통합 청소년 정책 서비스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 청소년센터들이 디지털 배지를 통해 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발급·관리하게 된다면, 청소년 활동에 대한 빅데이터가 축적되어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더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역량을 디지털 배지로 증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 기반 성장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배지 운영 가이드 배포, 설명회, 사례 공유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타 청소년 시설로의 확산을 도모하고, 시설 간 연계 활동 및 연합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협력과 파트너십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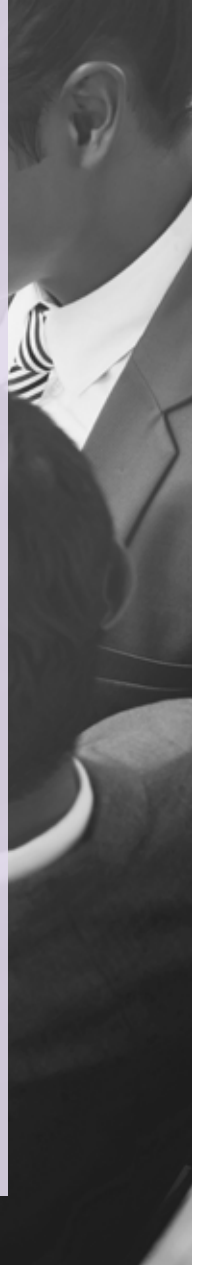
서울특별시교육청

양적 확장 측면에서는 AI·디지털 역량 강화 직무연수 과정을 220개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활용 사례를 상시 발굴하고, 디지털 배지를 받지 않은 교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배지 수령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배지 수령률 제고를 위해 게이미피케이션 원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단순한 보상을 넘어 교원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 설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확장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의 ‘지식샘터’와 같은 자율연수 플랫폼과 연계해 디지털 배지 활용을 확대하면 교원의 자기주도적 연수 설계와 이력 관리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AI·디지털 역량 강화 직무연수에 한정된 배지 운영을 비정형 학습 경험까지 확대하여, 자율연수 이력 관리로의 확장도 준비 중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올해 11월에 개최 예정인 AI·디지털 교육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배지 성과 공유회’ 세션을 운영해 교원 인식을 제고하고 배지 생태계의 저변을 넓힐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교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학습 인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경험 인증에서 성장경로 설계까지 현장이 증명한 디지털 배지의 효과

시립성북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 경험을 인증하는 수단으로 디지털 배지를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배지는 활동 이력을 시각화해 성취감을 높이고, 청소년이 스스로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학습 동기와 자기 인식이 함께 확장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원 직무연수 과정에 디지털 배지를 도입해 학습 몰입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 배지는 단순한 수료증을 넘어 참여 과정과 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며, 교원의 성장과 전문성 강화를 지원한다. 그 결과 교육 현장에서도 실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두 기관 사례는 디지털 배지가 이수 증명을 넘어 학습 동기 부여와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끄는 실효적 도구임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활동과 학습 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의 성장 경로를 점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배지는 참여자 중심의 교육 문화를 확산시키며, 경험과 성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의 핵심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다.

FOCUS

“디지털 배지는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적 성장을 이끄는 실효적 도구”

앞으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디지털 배지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평생교육에 적합한 학습 인증체계를 설계하여,
서울 시민 누구나 자신의 배움과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소개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는 주목할만한 평생학습 이슈를 선정하여 WHERE, WHO, WHAT, HOW, WHY 5가지 카테고리로, 평생학습이 우리 주변 어디서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과 현황을 보여주고, 앞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안합니다.

집필(인터뷰이): 박정희·오정은(서울특별시교육청), 조남익·이소라(시립성북청소년센터)
기획/편집: 이은주, 최민음(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